

경북동해안지역 경제일지

(2023년 10월중)

10. 27. ▶ 포항블루벨리 산단에 1천억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유치

- 진성SH신에너지(주)는 중국 광둥 진성신에너지와 포항블루벨리 국가산단에 리사이클링 공장을 건립할 예정
 - 올해 공장 착공을 목표로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2만평 부지에 2025년까지 총 1천억원을 투자함에 따라 250여명에 이르는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
- 이번에 건설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은 폐배터리에서 연간 4천톤 규모의 니켈, 코발트, 망간 등 핵심 원재료를 추출·생산하고 향후 양극소재 생산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

10. 31. ▶ ‘사라진 오징어’ 동해안 채낚기어업 줄도산 위기

-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경매가 진행 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
 - 최근 3년간 오징어 위판량과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어획량은 7308톤, 521억5천만원에 비해 2022년에는 어획량(-51%), 금액(- 26%) 모두 크게 감소
- 포항시는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오징어채낚기어선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△외국인 선원 고용유지비 지원 △어업용 유류비 증액 지원 △어업용 유류비 증액 지원 △수산물위판 수수료 지원 등의 긴급 예산지원을 중앙 부처와 경북도에 건의